

2015 모의아시아연합총회

연계성 강화를 통한 아시아 통합:
식량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소속 연세대학교
팀명 커넥티브(Can-Active)
팀원 국제관계학과 안대식
국제관계학과 전태표

목차

I. 서론

- 기존 아시아 통합 논의의 한계점
 1. 국가 간 연계성 부족
 2. 공통의 비전통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 미약

II. 본론

-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연계성 강화를 통한 식량 안보 문제 해결 방안
 1. 공급 문제와 인적 연계성
 2. 분배 문제와 제도적 연계성
 3. 저장 문제와 인프라적 연계성

III. 결론

I. 서론

지역 통합은 구성 국가 간 공통의 문제 인식과 이를 해결하려는 협력으로부터 출발한다. 아시아 지역 통합이 실현되지 않는 원인은 2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 간 '연계성(Connectivity)'의 부족이다. 오랜 기간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다양한 논의에도 협력이 동력을 얻지 못한 것은 그를 구체화시킬 연계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계성이란 국가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연결된 정도이다. 아시아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 협력의 모습에서 국가 간 연계성을 강화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적극적인 통합을 구상해야한다.

두 번째 원인은 협력의 전제가 되는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 안보 분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안보 문제는 국가 중심적 사고에 기반 한 전통 안보에서 인간 안보에 초점을 맞춘 비전통 안보로 무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비전통 안보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전통 안보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다. 또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국가 간 협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그 대응의 규모 및 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차원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위협으로 비전통 안보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비전통 안보 과제 중 아시아가 직면한 가장 위협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식량 문제이다. 2008년 G8정상회의, 2009년 G20정상회의, UN 세계 식량 안보 정상 회의에서는 식량 문제를 국제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핵심과제로 상정하였다. 아시아 지역으로 시야를 좁혀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식량안보지수(GFSI)¹⁾는 전 세계 105개 국가 들 중 말레이

1) 듀폰(DuPont)사가 위임하여 The Economist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간한 2012년도 세계 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GFSI)는 식량에 관한 부담능력(affordability) 식량의 공급능력(availability) 및 사용(utilization) 측면에서 식량안보현황을 평가하고 있다(The Economist, 2012)

시아 33위, 베트남 55위, 인도네시아 64위, 미얀마 78위, 캄보디아 89위 등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폴 텡 싱가포르 난양(南洋)이공대학 교수와 스위스 다국적 농업기업 신젠타(Syngenta)가 함께 개발한 ‘밥그릇 지수(Rice Bowl Index)’의 지난해 하반기(6~12월) 수치를 보면 아시아 14개국 중 9개국의 ‘밥그릇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직면한 식량 문제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통합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해야 할 공통 과제로써 식량 안보를 상징하고 이를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는 식량 안보를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의 섭취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식량 안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에 관한 것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도 문제의 속성과 영향력을 볼 때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는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아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주로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 용지는 줄어들어 식량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반면 경제 발전으로 인해 인구는 증가하여 식량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결국 산업화는 식량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량 불안 사태를 야기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식량 안보 문제는 앞으로 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될 아시아 국가들에게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은 식량 안보 문제의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구성 국가들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먼저 식량 안보 문제는 평시와 위기 시로 구분하여 대응해야한다. 평시의 식량 안보는 식량의 공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식량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분배와 저장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식량의 공급, 분배, 저장 문제는 각각 인적, 제도적, 인프라적 연계성 강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식량 공급의 문제는 인적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식량 공급은 평시 식량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아시아 차원의 농업 인력 사무소(Asia Agriculture Labor Office)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개발된 국가들의 경우 산업화의 결과로 농업 인력이 부족하다. 반면 개발 중인 국가들은 농업 인력의 양은 많으나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 투입 대비 생산 효율성이 낮다. 아시아 농업 인력 사무소는 이처럼 상이한 국가별 농업 인력 수요를 관리, 감독하여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을 각국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농업 인력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식량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의 양적, 질적 문제를 해결하여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식량 분배는 식량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에게 식량 비축 분을 제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량 분배와 관련된 논의는 ASEAN +3 차원의 논의를 통해 아세안 +3 비상 쌀 비축 제도(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를 만들어 시행하는 단계에 있다. APTERR은 분배 문제 해결에 있어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APTERR은 제도의 지속성과 신뢰성의 강화를 위해 더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APTERR의 비축량 대부분은 한, 중, 일에서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세 강대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납득할 만한 부분일 수 있으나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다른 국가들도 그 기여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축 방식의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APTERR은 식량 위기를 대비해 각 국가 내에 식량을 비축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 경우 평소 개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식량의 실제 비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 간 식량 비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식량 비축 분을 공동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 각 국가의 제도 이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량 비축 분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인프라적 연계성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식량을 한곳에 모아 저장하는 공동 식량 저장고(Asia Food Storage Center)를 건설하는 것이다. 공동 식량 저장고는 제도를 가시화하여 국가 간 신뢰성을 강화시키는 물론 그 자체로 협력을 상징화시킨다는 의의를 갖는다. 협력의 상징화는 국가들로 하여금 스스로 협력 증진의 동기를 부여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국가들이 공동 저장고에 식량을 모아두면 비축한 식량을 매몰 비용(Sunk-Cost)²⁾으로 인식하여 협력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프라적 연계성 강화는 제도를 보다 구속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Ⅲ. 결론

지역 통합은 구성 국가들 간 협력에서 출발한다. 협력은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 보다 강력해진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식량 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식량 안보는 비전통 안보로서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연계성의 강화를 통한 협력의 증진이 필요하다. 식량 안전은 공급, 분배, 저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보장될 수 있다. 이 3가지 문제는 각각 인적, 제도적, 인프라적 연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공통의 문제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이 가능해진다. 식량 안보와 같은 저위 정치 영역에서 협력이 증진되면 전통적 안보인 고위 정치의 영역으로 협력이 확산 될 수 있다(Spill-Over). 이러한 협력의 확산은 다시 국가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협력과 연계성 간의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지역통합은 보다 견고해지게 된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2) 매몰 비용은 이미 매몰되어 버려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즉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며, 함몰 비용이라고도 한다. 매몰 비용의 효과란, 이미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을 보이는 효과를 말한다.

참고문헌

- 유호근. 2012. “비전통 안보 이슈로서의 식량안보: 한국적 함의”. JPI 정책포럼 세미나
- 김종덕. 2003. “동아시아의 식량문제와 비정부기구의 대응”. 『지역사회학 제4권 제2호』 pp. 123-152
- 오주희. 2015. 『비전통 안보협력을 통한 동아시아의 번영』. 제13차 동아시아 포럼 개최식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014. :“2014 APTERR 사업 추진 계획”
- 김정환. “농식품부, 2015년산 쌀 39만톤 매입 추진”. 『KBS』. 2015. 09. 01
- APTERR. 2011. *20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APTERR.*
- 배금찬. 2015. “최근 중국-ASEAN 동향-중국의 2+7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배금찬. 2014. “2014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 분석 : 한 - ASEAN 특별정상회의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ASEAN Secretariat. 2011. 1.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 한-아세안 센터. 『4C로 이해하는 아세안(Understanding ASEAN through 4Cs)』. 2014. 11. 01. 외교부
- 이동훈. “아시아 ‘밥그릇 지수’ 하락 한국 등 9개국 식량안보 위기다!”. 『주간조선』. 2013. 07. 08
- 임송수. 2013. “지수로 본 세계의 식량안보 추이”. 세계농업 제152호